



테더(USDT)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소개 드려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ether>

테더(USDT)는 가장 잘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더는 다양한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며, 지난 수년에 걸쳐 거래량 및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마찬가지로, USDT는 암호화폐 트레이딩에 유용합니다. 트레이더는 이를 통해 BTC 나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시장 변동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암호화폐 및 법정통화 간의 전환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테더(USDT)의 정의

테더(USDT)는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의 가치를 모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는 2014년 비트코인 투자자 브록 피어스(Brock Pierce), 기업가 리브 콜린스(Reeve Collins), 소프트웨어 개발자 크레이그 셀러스(Craig Sellers)에 의해 리얼코인(Realcoin)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테더는 외환보유고 계좌에 보관돼 법정화폐의 지지를 받는 가상화폐입니다. 각각의 테더는 상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법정화폐와 연결됩니다. 테더는 외환보유고계좌에 보관돼 법정통화의 지원받는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이 방식은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테더 한 개에 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USDT는 본래 옴니 레이어(Omni Layer)를 통해 비트코인 프로토콜에서 발행되었지만, 이후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옮겨왔습니다.

테더는 중요한 여러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성공과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테더(USDT) 작동방식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법정통화에 연동(tethering) 또는 페깅(pegging)되어 있습니다.

USDT는 처음부터 USD에 정확하게 페깅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통되는 각 USDT마다 1 USD 달러를 실제로 보관하게 됩니다.

테더(USDT)의 중요성

테더는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연결합니다. 투자자는 다른 암호화폐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변동성 없이 USD를 일대일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투자자들은 다른 법정통화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른 코인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테더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 1:1 비율로 연동(USD와 USDT)
- 안정성(USD가 안정적이라고 간주되는 한),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금화 대신 재빨리 USDT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
-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 활용성이 높음

테더의 다른 암호화폐들

테더는 USDT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URT**: 유로화 페깅 테더 코인
- **CNHT**: 중국 위안화 페깅 테더 코인
- **XAUT**: 실물 금 페깅 테더 코인